

<2017년 8월 30일 수요일말씀>

역사의 기록 : 질서의 세계

본 문 고린도전서 14장 40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

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

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8월 13일 주일부터

<책으로 남기기 위해 기록한 말씀>을 설교로 전해 주고 있습니다.

◎ 이번 주 주일에는 <몸자세와 신앙의 자세>,

<마음과 생각과 행실의 자세>에 대해서 말씀했는데요,

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오늘 마저 해 주겠습니다.

◎ 오늘 말씀은 <질서>에 대한 말씀입니다.

이 말씀은 <잠언식>으로 전해야 이해가 더 잘되니,

<잠언>으로 말씀하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◆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도 상대가 몰라주는 원인이 있다.

각자 ‘자기 인생 삶의 골짜기’에 깊이 들어가서
몸부림치고 일을 하니 ‘산맥’이 가려서 안 보인다.

<일하는 골짜기>에 가서 ‘일해 놓은 것’을 보면 안다.

서로 그러함을 알고, 알아주고 칭찬도 해 주어라.

- ◆ **<섭리사 일에 관심이 없고 일을 안 하는 자>**는
‘일하는 자의 심정’도 모르고 ‘해 놓은 것’도 모른다.

<생각의 소경>이라서 그렇다.

모두 자세를 바르게 하듯이, 바로 보아라.

자기도 일해 보면서 겪어 봐야 ‘상대가 일한 것’도 알아준다.

- ◆ **<새 시대에 눈을 못 뜨고 새 시대 일을 안 하는 자>**는
새 시대 사람들이 ‘새 시대의 무슨 일’을 하는지 모른다.

- ◆ 누가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

자기는 이미 행해서 <구원>도 받았고 <휴거>도 받았고

<상>도 받았고 <받을 것>을 받아 났으니,

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를 보고서 할 일을 행해라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**<질서>**가 무엇이나. 곧 ‘**질이 서는 것**’을 말한다.
<질이 서는 것>은 무슨 말이나.
곧 ‘**질들었다. = 길들었다.**’라는 말이다.

- ◆ **<질서>**는 ‘**법**’이다.

곧 ‘뱀이 섰다. 사람이 바로 섰다.’ 라는 말이다.

<질>, 곧 <길>이 나서 바로 서야 ‘중심’ 이 선다.

- ◆ <하나님의 세계>는 ‘질서의 세계’ 다.

곧 ‘질=길이 바로 선 세계’ 다. ‘온전하다, 완전하다’ 함이다.

- ◆ 길을 닦아서 길이 서면, 길을 닦은 대로 다닌다.

열차 길을 닦아서 길이 서면, 열차가 길을 닦은 대로 다닌다.

인생도 그러하고, 신앙도 그러하다.

- ◆ <질서>를 벗어나면

목이 굳고 허리가 틀어지고

무릎과 골반이 돌아간 채 다니는 자와 같아서

오래 못 가서 주저앉는다.

- ◆ <1차>로 질이 서야 된다. 길이 서야 된다. 길이 잘 들어야 된다.

마치 자세를 바로 교정할 때

1차로 제일 먼저 뼈를 바로 세우고 다니듯,

<마음과 행실의 질>을 바로 세우고 다녀야 된다.

- ◆ <마음과 행실의 길>이 똑바로 ‘1자’ 가 돼야 하는데,

60도, 혹은 45도, 혹은 30도로 굽어 있는 자들도 있다.

어떤 자는 아예 ‘—’ 가 되어 누워 버렸다.

이런 자는 ‘누운 것에 길들어 버린 자’ 다.

길이 잘못 들었다. 질이 잘못 섰다.

- ◆ <동물>도 길들이기에 달려 있다. <사람>도 그러하다.

◆ <질들었다. 길들었다.> 함은 아주 체질이 됐다는 것을 말한다.

◆ <질이 좋은 사람>이 있고, <질이 나쁜 사람>이 있다.

재판 때도 ‘그 사람의 질’이 좋은지, 나쁜지를 크게 본다.

그런데 <좋은 질을 나쁜 질로 보고 재판하는 법관>도 있다.

그런 자는 ‘질이 안 좋은 나쁜 법관’이다.

◆ 하나님은 공의롭게 ‘각도’를 재 보시고 ‘질’을 측정하신다.

◆ <정상의 길>에서 벗어나면 ‘죄’로 보신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<질과 양>이다.

양이 많아도 질이 안 좋으면 - 가치가 낮고,

양이 적어도 질이 좋으면 - 가치가 높다.

질도 좋고 양도 많으면 - 가치가 최고다.

◆ <비진리>이면 많은 자들이 따라도 질이 안 좋으니 - 가치가 낮고,

<진리>이면 따르는 자들이 적어도 질이 좋으니 - 가치가 높다.

◆ 하나님은 ‘작아도 최고로 질이 좋은 것’,

그런 장소와 사람을 택하여 역사를 펴신다.

◆ 곡식도 과일도 ‘질’을 보고 가치를 따지고 씨를 남긴다.

<품종>을 ‘질’로 표현한다.

- ◆ <질이 안 좋은 사람들>은 수한까지 생명이 존재하기는 하나
<질>이 안 좋아서 ‘효력’과 ‘기능’을 잃고 쓰러진다.
- ◆ <질>은 ‘품질’이다.

물건을 보면, 얼마나 ‘질이 안 좋은 물건’이 많냐.

적당히 대충 만들어서 질이 나쁜
건물, 물건, 생활용품들이 너무 많다.

<질이 나쁜 물건>은 일찍 폐품이 되어,
일찍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진다.

<마음, 생각, 행실의 질>도 안 좋으면, 가치 있게 쓸 수가 없다.

질이 바로 서도록, 길이 바로 들도록
주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고쳐서
자기를 ‘가치 있는 자’로 만들어라.

- ◆ <체질>은 ‘몸의 질’이다.
<체질>이 안 좋으면, 병을 고쳐도 자꾸 또 병이 발생한다.
고로 <체질>을 좋게 만들기다.

- ◆ 사람이 <몸>을 연단하지 않고 그냥 쓰면,
질이 별로이고, 길이 안 들어서 약하다.

고로 조금만 더워도 못 견디고,
조금만 추워도 추위를 타고 몸살이 나서 못 견디고,
환경의 영향을 너무 잘 받아서 힘들어하고,

작은 일만 생겨도 신경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,
쉽게 우울증에 빠져서 제 기능을 못 한다.

고로 사는 데 너무 고통이 많다.

고로 연단하고 단련하여 <체질>을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.

- ◆ <마음과 생각>도 안 만들고 그냥 쓰면,
사람들과 너무 많이 부딪히고
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충격을 받고 괴로워한다.

<몸>도 운동하고 단련하여 강하게 만들듯이,
<마음과 생각>도, <신앙>도 강한 체질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.

그래야 편하게 살게 된다.

- ◆ 세상에는 ‘각종으로 부딪히는 것’ 이 많다.

그러나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면,
작은 토끼가 좋다고 쫓아와도 자기를 무는 줄 알고 기절한다.

연단되고 단련되면 뱀이 쫓아와도 일순간에 잡고,
큰짐승이 쫓아와도 다스린다.

연단되고 단련되면 어떤 문제가 닥쳐도 대처하고, 큰일도 해낸다.

<마음>도 <생각>도 ‘담대한 질’ 로 만들어라. 연단이다. 단련이다!
강철 기둥 같아라! 바위산 같아라! 1000년 묵은 소나무 같아라!

- ◆ 자연성전을 보아라. 돌과 바위가 굳건하게 서 있다.
비바람, 눈보라를 견디고 빛이 난다.

<질 나쁜 돌>은 다 깨졌다. 깨냈다.

너희 <마음과 생각>도 질이 좋고 굳건해야
비바람을 견디고,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서 있게 된다.

- ◆ <질 나쁜 것>은 귀히 쓰이지 않는다.

또한 약해서 ‘영화(榮華)’가 합당치 않다.

대장간에서 쇧덩이를 불에 넣고 물에 넣어 담금질하여
<좋고 단단한 질의 연장과 도구>로 만들듯이,
네 마음과 생각도
<물 같은 진리>와 <불 같은 성령>으로 담금질하여
<인생 걸작>이 되게 만들어라.

- ◆ 잘못해서 지적하는데,
자기 질이 나쁜 것은 모르고 서운하다 한다.

그러니 어떻게 귀히 쓰겠느냐.

- ◆ 인생, 잘 만들기 끝없다. 잘 만든 자를 보면, 눈에 확 띈다.

- ◆ <몸의 질, 마음과 생각의 질>이 안 좋으면
수고를 많이 해도 수고한 만큼 ‘표’가 안 나고 ‘효력’이 없다.

- ◆ <질>이 좋아야
 -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잘 느끼고,
 - 더 좋은 생각이 많이 떠오른다.

- ◆ 물건도, 자동차도, 녹음기도, 스마트폰도 질이 안 좋으면

<감도>가 약해서 제 기능을 못 한다.

- ◆ <품질>은 ‘감도’를 좌우한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육도 영도 ‘질’이 좋아야

- 빛나고,
- 제 기능을 발휘하고,
- <삼위의 사랑의 대상체>가 되어 ‘귀한 위치’에 서게 된다.

- ◆ 처음에는 미약하나

<마음과 생각의 체질>을 ‘굳건하고 좋은 질’로 만들어라.

- ◆ <물건>도 제값을 줬는데 ‘품질’이 안 좋으면
기분이 나빠서 딴 것을 사다 쓰게 된다.

<사람>도 ‘질’이 안 좋으면 그러하다.

- ◆ <강하고 거친 생각과 행위의 질을 가진 자>를 사람들은 싫어한다.
무섭다고 피하고, 그 옆에 있기 싫어서 떠난다.

- ◆ <안심같이 부드럽고 연한 마음과 생각과 행위의 질>이다.

<온유한 마음의 질>이다.

<유순한 말>이다.

- ◆ <피부의 질>도 부드럽고 고와야 좋다.

피부가 염소나 물소 가죽처럼 뻣뻣하면, 안 좋다.

이와 같이 ‘은혜의 피부의 질’ 이 좋아야 된다.

- ◆ <주의 말씀>을 받고 <성령의 불>을 받고 <하늘 사랑>을 받았어도 말과 행위가 거칠면 ‘질이 안 좋은 닭살 피부’ 취급을 한다.

그 ‘거친 말과 행위’가 살에 닿으면
기쁨은커녕 기분 나쁜 느낌을 받고,
마치 ‘썰기’가 쏘듯 하고 ‘참나무 껍데기’가 스치듯 하여
<부드러운 피부 같은 마음>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나서
<자연성전 병원>으로 기도하러 간다.

- ◆ <마음과 생각과 행동의 질이 강하고 거친데 못 고치는 자들>은 쓰기는 하되, ‘강하고 거친 위치’에 쓴다.

- ◆ <가인 성격의 질>이 구약부터 신약을 거쳐 이 시대까지 왔다.
<가인의 후손들>은 ‘메시아’를 못 맞았다.

- ◆ 어떤 사람은 <인상>은 험한데,
<마음의 질, 말의 질, 행위의 질>은 부드럽다.

<지혜>로

그때마다 ‘하나님의 마음’을 가지고 ‘성령’으로 대한다.

- ◆ <이상세계>는 ‘말과 마음과 행실의 질이 좋은 신부의 세계’다.

- ◆ <악평을 일삼는 자들의 질>은 그 성질대로
 - 엉정퀴 같고,
 - 자갈밭 같고,
 - 물이 없는 사막과 광야 같고,

- 인기척이 전혀 없고 야수들과 뱀과 해충들이 사는 밀림 같다.

- ◆ <전쟁을 일삼아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>은 생명들을 무참히 대하기 위해 무기만 주력해서 만들고 평화를 멸시한다.

전능하신 하나님께서 ‘돌이킬 기회’를 주시는데도 안 하면, 결국 ‘그들 자신이 만든 살생 무기’로 심판하신다.

- ◆ 지구 세상 어느 민족이나 ‘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택한 민족’이다.

그러나 <질서>를 깨고

타락, 음란함, 불법, 횡령, 사기, 무력, 미움, 핼,

의를 짓밟는 행위, 악평 등으로 질이 나쁘게 살면

하나님은 <개인적 심판, 가정적 심판, 민족적 심판>을 정해 놓고 그 시대 보낸 자와 함께 행하신다.

- ◆ <마음>이 담대하고 <행실>이 부드럽고 힘이 있어,
‘사탄’도 이기고 ‘악’도 이겨야 된다.

- ◆ <자세>가 바르지 않으면, ‘근육과 힘줄’이 땅겨서 아프다.

목을 앞으로 숙이면

목 앞쪽은 안 아픈데 뒷목과 등 쪽 근육이 땅기고,

힘줄이 쭉 잡아당겨지니 그리도 아프고 통증이 온다.

이와 같이 <질서의 자세=질이 서 있는 자세>가 바르지 못하면,

<의의 힘줄>을 ‘악과 불의’로 잡아당기는 격이 되어

생활의 고통이 온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질서를 지키면,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도 복잡하지 않다.
질서를 어기면, 적은 인원수가 살아도 부딪히고 복잡하다.

- ◆ <질서>는 ‘**순리**’ 다.

- ◆ <질서>는 ‘**순서**’ 다.

- ◆ <질서>는 ‘**정돈**’ 이다.

- ◆ <질서>는 ‘**참**’ 이다.

- ◆ <질서>는 ‘**제 위치에서 존재하는 것**’ 이다.

- ◎ 하나님께 ‘질서에 대해 빠진 말씀’ 이 있냐고 간구하니,
다음 말씀을 주셨다.

- ◆ (하나님) <질서>는 ‘**온전히 행하는 것**’ 이다.

* 때는 2017년 7월 29일 오전 10시 35분이다.

새벽부터 기도하고, 역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.

- ◆ (하나님)

<사람 몸의 지체>를 모두 ‘질서’ 로 창조하였느니라.

<천지 만물>을 모두 ‘질서 있게’ 창조하였느니라.

고로 <질서>로 ‘인생’ 을 살아야 잘된다.

<질서>로 ‘천지 만물’을 대해야
만물도 ‘순리’로 대해 주고 잘된다.

- ◆ <질서가 무너지질 때> ‘혼돈’이 오고 ‘고통’이 온다.
- ◆ 질서 있게 살아라. 그러면 쉽고 잘되고 형통한다.
- ◆ <질서>가 무엇이나. ‘하나님의 법’이다.
<하나님의 법>대로 살아야 쉽고 잘되고 형통한다.
- ◆ 모두 ‘정리, 정돈, 질서’ 다.
- ◆ <질서>를 떠나면, ‘위치를 떠난 천사장 루시퍼’ 같이 된다.
- ◆ <질서>, 곧 <순서>가 바뀌면 기계도 결합이 안 되듯이
만사의 모든 일도 그러하다.
- 먼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뛰어 보아라.
질서가 뒤바뀐 고로, 힘들어서 뛰지도 못한다.
- <질서>대로 먼저 뛰고 씻고 음식을 먹으면,
질서대로 했으니 ‘이상세계’ 다.
- ◆ <하루 삶의 순서>도 질서가 바뀌면,
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오히려 고통이다.
- ◆ <문장을 엮어 글을 쓸 때>도 질서가 바뀌면
글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.

가령 ‘**사람이 차를 탔다.**’ 라는 말을
질서를 떠나 ‘**차가 사람을 탔다.**’ 라고 쓰면,
혼돈되어 의미 전달이 안 된다.

또 ‘**사람이 개를 몰고 갔다.**’ 라는 말을
질서를 떠나 ‘**개가 사람을 몰고 갔다.**’ 라고 쓰면,
혼돈되어 의미 전달이 안 된다.

또 ‘**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했다.**’ 라는 말을
질서를 떠나 ‘**사람이 하나님을 심판했다.**’ 라고 쓰면,
혼돈되고 말도 안 된다.

그래서 하나님은 ‘만사의 모든 일’ 을 질서 있게 행하신다.

그리고 ‘질서를 깨뜨리고 혼돈 속에 사는 자들’ 을
질서 있게 다스리신다.

- ◆ <질서>는 ‘**그때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**’ 이다.
- ◆ <음식>도 ‘질서’ 대로 안 만들면 만들 수가 없고,
만들어 봐도 맛이 없다.
- ◆ <말>도 ‘질서’ 대로 ‘순서’ 대로 안 하면, 이해가 잘 안 된다.
- ◆ <질서대로 살지 않는 자>는 ‘**늘 고통**’ 이다.
- ◆ <하나님의 법>은 ‘질서’ 다.
- ◆ 먼저 <영>이 ‘천국’ 에 가고,
나중에 <육>이 ‘땅에서 조건’ 을 세우느냐.

먼저는 <육>이 ‘땅’에서
주를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삼위일체를 사랑하면서
합당한 행위로 조건을 세우고,
후에 <그 행위로 변화된 영>이 ‘천국’에 간다.

- ◆ 누구든지 <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법의 질서>를 안 지키면,
육도 고통이고, 영은 결국 영원한 형벌이다.

- ◆ <질서>는 ‘하나님의 방법’이다.

하나님은 ‘질서’대로 ‘하나님의 방법’대로
<보낸 자>를 통해 행하신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

◎ 이 말씀을 책으로 엮을 때는

8월 27일 주일말씀으로 나간

<역사의 기록 : 몸자세와 신앙의 자세, 마음과 생각과 행실의 자세>

이 말씀과 연결해서 엮어야 됩니다. - 교육국, 출판국 참고